

중국 해관의 통관절차에 대한 문제인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the Problem awareness and the Improvement of China Clearance Procedure

홍재성·Jae Sung Hong, 이용근·Yong Keun Lee

본 연구의 논점은 중국 관세행정체계에서 통관절차에 대한 재설계로 문헌연구의 방법에 의해 중국 관세행정체계에서 통관절차의 재설계 연구를 통해 가장 합리적인 중국관세행정의 새로운 통관절차를 찾기 위해 노력을 하였다.

결과적으로 향후 전개될 수 있는 중국 통관절차의 변화를 감지하여 관세청이나 수출입기업들은 물론 학계에서도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수집과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핵심주제어: 중국 관세, 절차 재설계, 통관

홍재성 |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무역학과 박사수료(redcoffee75@hanmail.net), 주저자

이용근 |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ylee@cau.ac.kr), 교신저자

Abstract

The main object of this paper is the clearance procedure reengineering of china customs. By the method of documentary research, the paper has tried to look for a new clearance procedure of china customs which be more reasonable through the study of clearance procedure reengineering of china customs.

As a result, systematic research is needed to gather information, and regulations of china clearance procedure, the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cleanup si re-quired.

Keywords : China Customs, procedure reengineering, clearance

Jae Sung Hong | Doctor's Completion,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Chung-Ang University

Yong Keun Lee | Professor,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Chung-Ang University

I. 서론

2010년 중국경제는 글로벌 유동성위기가 지속된 상황에서도 10%내외의 성장을 유지하였다. 2008년의 유동성위기로 인해 2009년 대외수출입, FDI투자과 소비 증가율은 하강국면을 보였으나 내수의 안정세를 유지했고 위안화 환율 급변동도 없었다.

중국은 1996년부터 한국의 3대 교역국으로 부상하였고, 2003년부터는 미국을 추월하여 한국의 제1 교역대상국이 되었다. 2010년 한국은 대중국 수출 1168억달러, 수입 715억달러를 기록하였다. 전년 대비 수출 34.8%, 수입 31.9%의 증가세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양적으로 증가한 대중국무역은 우리나라에게 매우 중요한 시장이 되었다. 하지만 중국 세관통관절차상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신속통관의 저해, 기업비용의 증가라는 악순환은 그동안 계속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악순환의 연속을 중국 해관이 인식하여 절차의 개선을 추구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됨으로 중국 통관절차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동안 한국과 중국의 통관제도에 관한 비교연구나 중국의 수출입통관절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등이 있어 왔지만 주로 한국의 입장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본 연구는 중국 연구자의 입장에서 본, 자국 통관절

차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기존의 연구에 부합시킨 것으로 기존의 연구 방법과 같은 문헌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한국의 관련 자료는 관세청, 공공기관의 연구서, 각종 학회의 연구자료, 법제처 등에서 발표한 자료를 참조 및 인용하였고, 중국의 관련 자료는 중국 해관, 해관에서 출판한 통관지침서, 각종 통관 출판물 등의 문헌을 연구하여 중국 통관절차상의 문제점과 그에 상응한 개선방안의 도출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한국의 수출입통관절차와 상이한 중국의 통관절차를 이해하고, 중국 세관장들의 본국 통관절차상의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향후 전개될 수 있는 통관절차의 변화를 감지하여 관세청이나 수출입기업들이 중국의 통관행정 업무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중국의 자국 통관절차에 대한 개선 의지로 향후 전개될 수 있는 중국 통관절차의 변화를 연구하는 것으로 제2장은 중국의 관세 및 통관에 대한 선행논문을 검토하고 한국의 대중국 무역현황을 분석한다. 제3장은 중국의 수출입 통관 규정을 살펴본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중국 세관장들의 통관절차에 대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도출한다.

II. 선행연구의 검토 및 대중 무역 현황

한·중 양국의 교역량은 1992년 수교이후 현재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중국은 지리적으로 한국과 인접하고 문화적으로도 많은 유사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한국에 비해 노동력이 저렴하고 풍부한 천연자원이 있어 한국기업에게는 중요한 교역대상국이다.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한국은 중국과의 교역을 매년 확대해 왔다. 2010년까지의 통계수치에 근거하면 대중국 수출은 2010년 천억달러를 넘어섰으며 현재까지 중국에 투자한 액수 또한 삼백억달러를 넘어섰다. 그러나 상관습이 다르고 정치적 환경, 법규 및 문화적 환경 및 경제적 환경이 상이한 점은 주의를 하여야 할 것이다.

본 장에서는 중국의 관세 및 통관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그리고 대중국 무역 현황을 분석하여 대중국 무역의 중요성을 보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1. 선행연구 검토

중국 통관 관련 선행연구는 주로 중국 통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그다지 많지 않다.

관련 연구로서 김희정(2005)은 한·중 통관제도의 특징 비교, 한·중 관세법규 조사 요약, 통관관행상의 상이점을 비교

하여 한·중 무역업자들이 수출입통관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유의사항들을 제시하였다. 또한 양국 간의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많은 차이점이 존재함을 알았고 한국의 국제적인 통관기준에 상응하게 중국도 그 기준에 맞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중국은 통관 자동화 시스템을 통일시켜야 한다는 과제를 제시하였다.

조종주(2000)는 통관제도는 수출입화물을 세관에 통과시킨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중국은 동일한 의미를 갖지만, 통관제도를 이행하는 법제와 절차적인 면에서 우리나라와 중국은 상당한 차이점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물품의 수출입을 관리하는 세관, 통관의 주체인 통관업무취급기업 그리고 통관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남풍우와 한상현(2000)은 중국은 우리와 지리적 인접성 및 활발한 역사적·경제적 교류에도 불구하고 상관습과 법개념 등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여타국에 비해 많은 분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분쟁은 우리 수출기업들의 중국 관세제도에 대한 인식 부재에서 기인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의 수출입상품 통관제도의 특징과 동향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여 우리 수출기업들이 인식해야 하는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시하였다.

유양(2010)은 중국의 현행 수출입통관에 관한 법률과 세관 운영 실태를 검토하고 한·중 통관절차를 비교·분석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중국 영토에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선진 통관제도의 도입 필요성 및 그 당위성을 제시하였다.

라공우와 강진욱, 이선표(2011)는 중국의 복잡한 통관절차 환경이 국제교역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는 무역장벽으로 인식되고 공급자와 소비자에게 적지 않은 시간적·금전적 비용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의 해관법, 수출입관세조례, 수출입세금징수관리 방법 등의 관련 법제도를 우리나라 관세법제와 비교 연구하여 문제점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김석민(2007)은 중국의 수출입 통관체계는 우리나라와 달리 적용법규, 관행 등이 매우 복잡하고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어 불확실성으로 인한 통관물류관련 리스크를 항상 내재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최근 중국정부와 해관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는 통관물류 개혁방안에 관한 고찰을 통하여 국내 수출입기업 및 향후 대중국 투자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중국 통관제도에 대한 이해와 전략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진평(2006)은 한·중 수입통관제도를 비교 연구하여 중국 수입통관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수입통관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한국의 선진 수

입통관제도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이준건(2010)은 중국전자통관시스템의 이용현황 및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한국, 미국, 일본 전자통관시스템의 특징을 분석하여 시스템 운용 측면, 경제적 측면, 제도적 측면, 글로벌 연계 측면에서 중국전자통관시스템이 개선해 나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상기의 중국 관세 및 통관 관련 연구들을 선행 연구한 결과, 우리나라와의 관세 및 통관 관련 제도 및 절차와 비교 분석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해내고 있다.

하지만 중국 자체 내에서의 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으면 문제점을 제시하여도 개선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중국 연구자들의 문제인식 및 그에 대한 정부로의 건의 등에 대한 연구를 살펴봐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2008년 중국 통관상의 문제에 대해 중국의 전국 세관장들이 세미나를 개최하여 그에 대한 문제를 토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중국세관장들의 문제인식을 근거로 하여 변화할 수 있는 중국의 통관절차를 연구하여 관세청이나 수출입기업들이 변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2. 대중 무역 현황

2.1 한국의 대중국 수출입 현황

한·중 양국 간 경제교류는 중국의 개혁 개방 정책이 시행된 1979년을 전후하여 홍콩을 통한 간접교역방식의 소규모 상품교역에서 출발해 1992년 수교 당시 64억 달러에 이르렀다(김길규 2003). 이후 교역량의 증가는 2010년 1884억달러로

1992년의 약 3배에 달했다.

<표 1>을 살펴보면 2010년 대중국 수출은 1168억 달러(34.8% 증가), 수입은 715억 달러(31.9%)로 453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2008년 미국발 유동성 위기의 여파는 2009년 한국의 대중국 수출입에 많은 영향이 있었음을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2010년 다시 대중국 수출입은 호조세를 보이고 있음이 표를 통해 확인된다.

<표 1> 한국의 대중국 수출입 현황

단위: 천 달러, %

년도	수출		수입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2005	61,914,983	24.4	38,648,243	30.6
2006	69,459,178	12.2	48,556,675	25.6
2007	81,985,183	18.0	63,027,802	29.8
2008	91,388,900	11.5	76,930,272	22.1
2009	86,703,245	-5.1	54,246,056	-29.5
2010	116,837,833	34.8	71,573,603	31.9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통계DB

2.2 한국의 대중국 10대 수출입 품목 현황

<표 2>는 한국의 대중국 10대 수출입 품목의 현황으로 수출입의 많은 부분을 완제품이 차지하고 있지만 부품이나 원자재 또한 그에 상당하는 교역량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정부의 가공무역을 위한

부품, 원자재에 대한 수입 보증금제도 및 각종 수입규제는 중국산과 대체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만 구매선의 교환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구조적인 무역 형태는 큰 변화가 없음을 <표 2>를 통해서 알 수 있다.

2009년 중국의 일반무역에 의한 수출은 5,298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44.1%를 차지하고 수입은 5,344억 달러로 전체 수입의 53.1%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그에 상당하는 교역량을 차지하고 있는 가공무역에 의한 수출은 5,868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48.9%를 차지하고 수입은 3,222억 달러로 전체 수입의 32.1%를 차지하였다. 중국의 대외 교역량에서 가공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일반무역에 상응하는 수

치이다.

이러한 대중 무역 현황은 한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대중 무역의존도가 높은 현재 중국의 통관제도 및 절차에 대한 인식이 낮다면 많은 문제를 포함해 무역의 신속, 정확에 기인한 비용 절감이라는 측면 또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와 제고가 필요하다.

<표 2> 한국의 대중국 10대 수출입 품목 현황

단위: 억 달러, %

순위	대중국 수출			대중국 수입		
	품목명	2009	2010	품목명	2009	2010
1	전자부품	264(35.3)	410(55.1)	전자부품	105(-12.1)	134(28.3)
2	석유화학제품	141(-5.1)	171(20.7)	산업용전자제품	73(-14.9)	103(41.9)
3	산업용전자제품	99(-14.4)	95(-3.9)	철강제품	69(-59.6)	93(35.5)
4	수송기계	51(8.8)	71(39.3)	섬유제품	28(-26.1)	36(27.1)
5	광물성연료	47(-45.3)	68(46.9)	정밀화학 제품	23(-20.0)	33(41.4)
6	철강제품	45(2.6)	46(2.3)	수송기계	19(0.5)	30(63.4)
7	기초산업기계	30(-53.5)	44(47.0)	heavy electric기기	18(-17.6)	26(45.6)
8	산업기계	23(-8.4)	40(72.6)	가정용 전자제품	19(-16.2)	22(13.7)
9	비철금속제품	24(-15.4)	29(24.4)	농산물	18(-15.5)	21(18.1)
10	정밀화학제품	18(-12.1)	27(53.4)	광물성연료	17(-58.9)	19(12.4)

주: MTI 2단위 기준, ()는 전년동기 대비 증감율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통계DB

Ⅲ. 중국의 수출입 통관 규정

1. 통관 개요

1.1 해관

중화인민공화국해관은 국가의 수출입 관세영역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을 가리킨다. 해관은 해관법과 기타 관련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출입경의 운송수단, 화물, 수화물, 우편물과 기타물품을 관리 감독하고 관세와 기타 세금의 징수, 밀수 조사, 해관통계 작성과 기타 해관업무를 처리한다(해관법 제2조).

해관은 국가행정관리체제에 속하는 행정기관으로 각 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이러한 전국의 세관을 관리, 감독하는 해관총서는 국무원의 직속기관이다(海關總署監督司 2010).

1.2 통관업무 취급기업

중국해관법에서는 수출입화물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출입 화물의 수하인과 적송인이 스스로 납세수속을 처리할 수 있으며, 또한 수출입 화물의 수하인과 적송인이 세관의 등록등기를 준한 통관수속기업이 통관납세수속을 처리할 수도 있다. 입출국화물의 소유자는 스스로 통관납세수속을 처리할 수 있으며 또한 타인에게 위탁하여 통관납세수속을 처리하도록 할 수도 있다(해관

법 제9조).¹⁾

또한 통관수속기업이 수출입화물의 수하인과 적송인이 위탁을 접수하여 위탁인의 명의로 통관수속을 하는 경우 마땅히 세관에 위탁인이 서명한 수권위탁서를 제출하고 이 법의 위탁인에 대한 각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통관기업이 수출입화물의 수하인과 적송인의 위탁을 접수하여 자신의 명의로 통관수속을 하는 경우 마땅히 수하인과 적송인과 동일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해관법 제10조).²⁾

그리고 통관업체는 법에 의거하여 해관에 등록된 수출입화물의 송수화인이나 통관기업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관법 제11조>의 규정에 근거하면 "화물의 송수화인, 통관기업은 통관수속을 처리하기 위해 반드시 법에 근거하여 해관에 등록해야 한다. 해관에 미등록한 기업과 보관원 업무자격을 미취득한 인원은 통관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다(해관법 제11조).

통관기업과 통관인원은 불법으로 타인의 통관수속을 대리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그 업무범위를 초월하여 통관활동을 진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통관의 우대를 받기 위해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기

1) 라공우, 강진욱, 이선표(2011), "우리나라와 중국의 관세법제의 비교연구", 「관세학회지」, 12(1), 102.

2) 라공우, 강진욱, 이선표(2011), "우리나라와 중국의 관세법제의 비교연구", 「관세학회지」, 12(1), 103.

업분류 관리방법에 의한 기업분류를 통해 AA, A, B, C, D의 5개 관리류별을 설정하고 있는데 AA, A류 기업은 통관관리조치를 적용하고, B류기업은 일상적인 관리조치를 적용하며, C, D류 기업은 엄격한 관리감독조치를 취하게 하고 있다(중화인민공화국 세관 기업분류 관리방법 제4조).³⁾

1.3 수출입 신고 및 신고시기

물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에 수출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수출입신고는 수출입화물의 송수화인 또는 수위탁 신고업체가 <해관법>, 관련법률, 행정법규와 규칙에 근거한 기한이나 지점의 요구에 입각해 전자데이터신고서와 서면신고서의 형식을 사용하여 해관에 실제 수출입화물의 현황을 보고하고 해관은 이를 접수하여 심사하는 행위를 가리킨다(海關總署監管司 2010).

수출입 신고시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 수입화물의 경우 수입화물의 수화인은 운송수단의 입항신고일로부터 14일 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수출화물의 경우 수출화물의 송화인은 해관의 특별허가를 거쳐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화물을 해관관리감독구역에 운송한 이후나 선적 24시간 이전에 해관에 신고해야 한다(해

관법 제24조).

해관은 물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수출입신고서에 의한 신고를 받아 처리한다. 수출입화물 처리의 해관신고수속은 서면신고서와 전자데이터신고서의 형식을 채택한다(해관법 제25조).

1.4 심사 및 검사

세관은 화물의 수출입신고를 접수한 후 화물송장 등의 각 항목별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심사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유관단체에 통지하여 시정조치를 취하게 한다(조종주 2000).

수출입화물의 검사는 해관이 수출입화물의 송수화인이 해관에 신고한 내용의 진위 여부와 수출입화물의 진실 상황을 확정 혹은 상품의 분류, 가격, 원산지 등을 확정하기 위해 법에 근거해 수출입화물에 대해 실질 검사를 진행한 법률적 행위를 가리킨다(海關總署監管司 2010). 해관의 화물 검사 시 수입화물의 수화인, 수출화물의 송화인은 현장에 있어야 하며 화물의 운반, 개봉과 재포장을 책임진다. 그리고 해관은 필요에 따라 임의로 검사나 재검 혹은 견본 채취를 할 수 있다(해관법 제28조).

1.5 통관 허가

수출입화물의 통관허가는 해관이 수출입화물 송수화인의 신고를 접수하여 신

3) 라공우, 강진욱, 이선표(2011), "우리나라와 중국의 관세법제의 비교연구", 「관세학회지」, 12(1), 103.

고에 대한 심사, 검사, 징수업무를 완성하고 수출입화물에 대한 현장작업을 완성하는 것으로 수출입화물의 송수화인에게 수입화물에 대한 반출이나 수출화물에 대한 선적을 허가하는 법률행위를 가리킨다(海關總署監管司 2010).

2. 구체적인 통관절차

현재 중국해관의 통관업무 절차는 조작의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일반통관업무의 절차는 해관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통관업무의 절차로 화물을 해관의 관리감독구역에 운송하여 화물송수화인 혹은 그 대리인은 법에 의거하여 해관에 신고한다. 해관은 신고서의 데이터와 실제 화물에 대해 심사, 검사, 세금징수, 통과허가와 같은 일련의 업무절차를 진행한다. 둘째, 해상 또는 항공운송 수입업무 절차(사전통관수속, 화물도착 후 검사·통과허가)는 해상 또는 항공운송 화물을 입항 전 신고하는 것으로 기업은 사전신고하고 해관은 관련 수속을 먼저 처리한 후 화물 도착 후 검사·통과허가 수속을 재처리하는 절차를 가리킨다. 셋째, 무서류(paperless) 통관 업무절차는 기업이 네트워크를 통해 신고하는 전자데이터신고서에 대해 해관이 직접 심사, 검사, 통관처리를 진행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서면서류의 업무 절차가 불필요하다. 넷째,

신속통관 업무절차는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에 대해 신속통관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과정의 간소화는 차별화 서비스의 통관 업무절차를 제공한다(孫毅彪 2007).

이러한 통관절차의 형태에서 가장 일반적이며 가장 대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일반 통관업무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일반 통관업무 절차는 전자신고, 신고접수, 신고서접수 심사, 세금징수, 검사, 통과허가 등의 몇 가지 기본적인 과정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수출입화물이 해관의 관리감독구역에 진입한 후 송수화인 혹은 그 대리인은 통관서류 사전입력 시스템인 전자항구(e-port)⁴)를 통해 해관에 전자데이터신고서를 발송한다. H2000시스템은 계수비교의 자동심사를 진행하여 비교 통과한 신고서에 대해서는 신고접수의 증명서를 발송하고 통과하지 못한 전자데이터신고서에 대해서는 접수거부의 증명서를 발송해 기업에게 수정을 진행하게 한다. 기업은 접수 증명서를 수령한 후 서면신고서를 출력하여 관련서류(수출입화물의 계약서, 포장명세서, 허가서류 등)와 함께 해관의 통관부서에 보내 신고를 진행한다. 해관통관부서는 먼저 초심을 진행하는 곳에서 서면신고서와 전자데이터를 심사하여 문제가 있을시

4) 세관의 EDI통관 시스템으로 상해는 2009년을 기준으로 수입신고의 98%가 이 시스템을 통해 처리되었다.

반송 수정을 진행하고 문제가 없을시 H2000시스템에서 신고서접수 입력을 진행하여 서면신고서를 재심을 하는 부서에 보낸다. 세금이 있을시 기업은 세금영수증을 출력하여 세금을 지불한 후 핵소⁵⁾를 진행한다. 재심부서는 서면신고서와 전자데이터를 재심사하여 문제가 있을시 반송 수정을 진행하고 문제가 없을시 서류상에 통관허가를 날인 및 H2000시스템에 통관허가 입력을 진행한다. 초심 혹은 재심을 진행하는 곳에서 만약 신고서에 대해 의심이 있으면 기업에게 설명 혹은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스템 상에서 실제화물에 대한 감시규제의 명령을 하달할 수 있다. 감시규제대상 화물에 대해서 기업은 화물을 해관집중검사장에 반입하여 해관검사부서가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검사는 기록표를 작성하여 H2000시스템에 검사결과를 입력한다. 틀림없는 검사 후 해관통관부서는 정상적인 검사의 검사기록표와 컴퓨터데이터에 근거해서 서류상에 통관허가를 날인 및 H2000시스템에 통관허가를 입력한다.

5) 중국에서 외환관리를 위해 만든 개념으로 외환관리국에서 핵소단(가공무역세관검사서)이라는 서류를 수령하여 통관에 사용하고 통관 완료 후 세관에서 핵소단을 반납받아 수출대금입금처리를 하는 행위.

IV. 중국 해관의 통관절차에 대한 문제인식 및 개선방안

1. 통관절차상의 문제인식

중국해관은 수출입 관세영역의 관리감독 기관으로 법에 의거하여 출입경의 운송수단, 화물, 수화물, 우편물과 기타물품을 관리, 감독한다(卞耀武 2001). 화물은 국가의 관경 혹은 국경을 통과할 때 반드시 해관에 신고를 하고 해관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즉, 각종 항목의 법정의무를 이행 및 해관수속을 거친 다음 화물은 통관 처리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관이라 칭한다. 해관통관업무의 절차는 화물통관 과정에서 해관이 화물에 대해 관리감독을 실시하거나 진행하는 각종 규범성의 업무조작과 관리활동의 과정을 가리킨다(林臙 2008).

현재 중국해관은 통관절차상의 복잡함과 비효율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다음은 중국해관이 인식하고 있는 문제로 2008년 전국 해관장 회의에서 발언을 한 내용이다. 첫째, 중국대외무역은 급속도로 발전하여 해관이 관리, 감독해야하는 화물량이 증가해 통관업무량에 비해 관리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모순이 다음 단계로의 도약에 제약을 가지고 있고 있다. 둘째, 통관 업무는 세수, 관리감독, 밀거래단속 등 전통적인 기능의 업무가 지속적으로 가중되는 현재의 상황 하

에서 테러리즘, 무역망의 안전과 편리의 보호, 지식재산권 보호, 국제무역분쟁 해결 등 비전통적인 기능의 업무 또한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셋째, 해관 각종 항목 개선의 단계에서 여전히 장기간 지속되어온 모순들이 존재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을 찾지 못하여 업무개선의 어려움은 더욱 크다. 넷째, 사회가치 취향의 다원화, 물질문화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해관의 재정비와 재건은 반드시 필요하다(牟新生 2008).

이렇게 중국해관은 해관 통관행정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과 동시에 변화의 촉구를 위한 목소리가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2. 통관절차에 존재하는 문제6)

현재의 통관업무 절차에 대한 분석과 진단을 진행하여 해관의 통관업무 절차에 존재하는 문제를 찾는다.

2.1 효율과 부가가치측면

- (1) 서류심사는 중복심사의 과정이 존재한다. 즉, 심사의 내용은 완전히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는 이러한 중복심사과정을 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효율과 부가가치를 낮출 뿐만 아니라 중복노동을 조

성하여 귀중한 인력자원을 낭비한다. 결국 관리자원의 부족이라는 모순이 가중되는 것이다.

- (2) 서류의 반송 수정 절차는 해관자원의 낭비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기업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준다. 현재의 과정에서 일부 신고서는 반복적으로 신고철회가 나타날 수 있으며 해관과 기업 모두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통관효율 측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1차 신고, 2차 수리”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 (3) 신고서는 서면수기날인과 동시에 컴퓨터시스템을 통한 입력이라는 두 번의 업무 조작을 통해야 하는데 그 중 서면수기날인은 시간과 노동의 비용, 관리감독 통제의 어려움 때문에 컴퓨터시스템 입력이 가지고 오는 효율의 제고를 상쇄하여 중국에는 절차의 부가가치가 줄어든다.

2.2 고객과 서비스측면

- (1) 수출입기업은 해관의 외부고객으로 해관에 대해 통관효율과 서비스수준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현재의 해관통관업무 절차는 해관관리감독의 수요를 담보하고 있

6) 林贇(2008), “中国海关通关作业流程再造研究”, 上海交通大学 硕士学位论文, p.38~39.

다. 즉, 절차 설계가 근본적으로 관리감독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 서비스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2) 전체의 통관업무 절차는 조작의 전문성과 절차 그 자체의 복잡성으로 인해 해관통관 효율의 제고에 제약을 가지고 온다. 또한 기업에게 조작과 이해측면에서 많은 불편함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해관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기업은 기술적인 장애를 초래한다.

2.3 비용과 효익측면

- (1) 해관통관업무에서 행정비용과 효익간의 관계를 소홀히 한다는 측면으로 투입자원의 비중에 비해 생산효익의 낮음에 대한 통관업무 절차의 관심 부족은 비용을 아까지 않는 행정문화를 형성하였고 해관 통관업무 흐름에서의 자원낭비를 조성하였다.
- (2) 해관통관업무의 외부비용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화물검사에 대한 기업의 비용이 너무 높다는 문제에 대해 관심이 부족하고 해관통관속도와 기업 및 사회비용간의 관계에 대한 계량화 연구가 부족해 해관통관 업무절차의 외부비용에 대한 평

가가 어렵다.

- (3) 서류에 대한 부서 상호간의 연결 시간이 비교적 길고 물품검사의 통관업무 시간 또한 비교적 길어 흐름의 병목현상이 조성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수하고 복잡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통관업무 절차의 시간은 더욱 지체될 것이다.

2.4 통관과 관리감독측면

- (1) 해관통관업무 과정의 직능은 부담이 많은 업무로서 수출입화물의 관리감독에 대해 유효한 시간 내에 해관통관업무의 절차를 구현해야 한다. 이렇게 과도한 통관업무 절차를 감당할 수 없어 사전관리와 사후관리의 제도설계와 관리이념은 자연스럽게 결여된다.
- (2) 화물의 감시관리를 주로하고 수출입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다면 기업의 법률 수호에 대한 상황이나 신용의 기록을 해관 통관업무의 절차에서 구분해 낼 수 없어 법을 수호하는 기업에게는 편의성을 제공해주고 법을 어기는 기업에게 제재를 가하는 법집행원칙을 구현하기 어렵다.
- (3) 매번 신고서류는 같은 심사를 통해

처리된다. 위험관리와 기업분류관리의 이념과 방법은 현재의 해관 통관업무 절차에서 구현될 수 없으며 낡은 신고처리 방식은 세계경제의 발전변화에 부흥하기 어렵다.

- (4) 통관업무 절차에서 정보화기술수단의 작용이 아직 충분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H2000통관관리시스템이 있지만 새로운 기술수단을 활용하여 인력으로 심사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겠다는 목표는 구현되지 않고 있다. 즉, 해관 통관업무 절차는 정보화와 전자화 실현으로부터 아직 거리가 있다.

3. 통관절차 재설계를 통한 문제 개선

통관절차의 분석과 진단을 통해 현재 해관의 통관절차에는 효율성, 고객에 대한 서비스, 비용, 관리감독 측면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외부 환경의 급격한 변화, 전통적인 행정체계와 행정이념으로 해관 통관업무에 새로운 변화와 환경의 요구 및 도전을 초래하였다. 문제해결의 방법은 통관절차의 재설계에 있다.

3.1 비효율적인 절차 간소화 및 제거

절차 재설계 이념의 강화는 부가가치

분석을 통해 부가가치에 효율적이지 못한 절차를 발견하여 간소화를 시키거나 제거를 한다. 그리하여 비용은 낮추고 효율은 높인다.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서는 최적화를 통해 더욱 높은 가치 실현을 이루도록 한다.

현재의 통관업무 절차에서는 부가가치가 없거나 부가가치가 비교적 낮은 절차가 존재한다. 이에 대해 부가가치 분석의 방법을 통해 부가가치가 없거나 부가가치가 비교적 낮은 절차를 찾아내 최적화한다. 제거나 간소화로 통관 업무절차를 발전시킴과 동시에 통관속도와 통관업무 부담의 경감을 제고한다.

3.2 고객중심인 해관통관 업무 절차 구축

고객중심인 해관통관 절차의 재설계로 고객의 가치를 목표로 한다.

해관의 고객인 수출입 기업은 물론 해관 내부에 종사하는 구성원을 중심으로 하는 해관통관 업무의 절차를 구축하여 국가의 국정방침으로 채택해 국가이익을 위함은 물론 기업의 요구를 충분히 고려해 기업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3 해관 통관업무의 비용 및 효율 제고

통관절차의 재설계는 기업의 관리 이론이나 정부의 개혁 이론과 관계없이 통관업무의 비용을 낮추고 효율의 제고를

강조한다. 그중 정부의 통관절차 재설계의 목적은 행정비용을 낮추어 정부가 투입하는 행정자원과 산출되는 사회 효익간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재설계는 해관의 법집행 비용과 기업의 법수호 비용을 재차 고려하는 것으로 해관통관업무에 투입되는 비용과 산출되는 이익에 대해 측정을 할 수 있다. 그리하여 해관의 행정비용을 낮추고 동시에 기업의 해관통관절차에서 불필요한 비용을 낮추어 해관통관 업무흐름의 효율화와 최적화를 실현한다.

3.4 해관통관 관리감독 수준 제고

통관절차의 재설계 이론과 실행은 정보기술을 기초로 하는 새로운 방법과 절차관리의 이념으로 전통적인 업무 흐름에 대해 재설계를 진행하여 관리수준을 높임으로써 계속하여 변화하는 환경의 도전에 대응한다.

해관통관업무 절차의 재설계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방법을 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은 물론 통관업무에서의 문서류화 추진도 가능하다. 또한 재설계는 검사, 기업의 불법 관리나 위험관리 시스템을 중심으로 하여 해관의 관리감독을 구체화시키고 시간과 공간의 확대를 도모할 수 있다. 통관업무 절차에서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는 위험관리와 위험분석으로 전통적인 통관서류 심사패턴을 변화시키고 동시에 이전의 통관업무

절차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부분의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관리감독의 효율성 제고를 실현한다.

V. 결론

1970년만 해도 대중국 수출액이 700만 달러에 불과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대중국 수출의 비중은 1% 정도였으나 2003년부터는 미국을 추월하여 한국의 제1 교역대상국이 되었다. 또한 2010년 한국은 대중국 수출 1168억달러, 수입 715억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대비 수출 34.8%, 수입 31.9%의 증가세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통관관련 법제도는 국제관례와 WTO의 요구 조건에 맞추어 대폭적인 개정작업을 통하여 많은 부분을 선진적으로 개정해 왔으나 여전히 복잡하고 효율적이지 못한 한계를 나타내 보이고 있으며 수출입기업 뿐만 아니라 중국 관세업무를 담당하는 중국의 세관 구성원들 또한 이러한 비효율성에 대해 업무상의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2장에서 한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 및 중요성을 재차 언급하였고, 3장에서는 중국의 수출입 통관규정을 대략적으로 살펴봄과 동시에 현행 중국의 통관절차상의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논하였다. 그리고 4장에서는

3장의 문제점을 인식한 중국 연구자의 중국 통관절차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논하였다. 이러한 중국 통관절차의 문제점을 인식한 중국 내부의 변화 움직임을 한국의 관세청이나 수출입기업들은 포착하여 변화하는 중국의 통관 관련 문제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중국 세관장들의 통관절차상의 문제인식을 토로한 세미나를 인용하여 앞으로의 변화 방안에 대한 중국 연구자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중국 연구자의 이와 같은 자각은 그동안 우리나라 연구자들의 중국 통관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한 제시 및 방향성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반면 본 연구는 정확한 통관법의 규정에 의해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도출한 것이 아니라 문제 도출 및 개선 방향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따라서 상기의 “통관절차에 존재하는 문제”, “통관절차 재설계를 통한 문제 개선”에 대한 각 항목의 실증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중국 연구자의 자국 통관절차에 대한 문제인식과 그에 대한 개선의견을 토대로 앞으로의 중국 통관제도에 대한 변화를 가늠하고 대처할 필요성이 있겠다.

<게재확정일: 2011년 6월 15일>

<최초투고일: 2011년 4월 13일>

<수 정 일: 2011년 5월 11일>

참 고 문 헌

- 김길규(2003), “중국 상관습과 무역 및 투자분쟁 사례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석민(2007), “WTO 무역원활화 논의에 따른 중국의 통관제도 개혁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43, 131-153.
- 김희정(2005), “한·중 통관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남풍우, 한상현(2000), “대중국 상품수출에서 통관상의 문제점과 우리 기업의 대응책,” 「상품학연구」, 22.
- 라공우, 강진욱, 이선표(2011), “우리나라와 중국의 관세법제의 비교연구,” 「관세학회지」, 12(1). 102-103.
- 유양(2010), “중국 수출입 통관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준건(2010), “중국 전자통관시스템 활용과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종주(2002), “중국 통관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무역상무연구」, 13.
- 진평(2006), “중국 수입 통관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林贇(2008), “中國海關通關作業流程再造研究,” 上海交通大學 碩士學位論文, 10-39.
- 牟新生(2008), “在2008年全國海關關長會議暨海關系統雙先表彰大會上的講話,” 北京海關總署.
- 海關總署監管司(2010), “中國海關統管指南,” 中國海關出版社, 1-25.
- 孫毅彪(2007), “海關風險管理理論與應用研究,” 上海復旦大學出版社, 131.
- 卞耀武(2001), “海關法釋義,” 北京法律出版社.
- 中華人民共和國海關法(2000. 7. 8.).